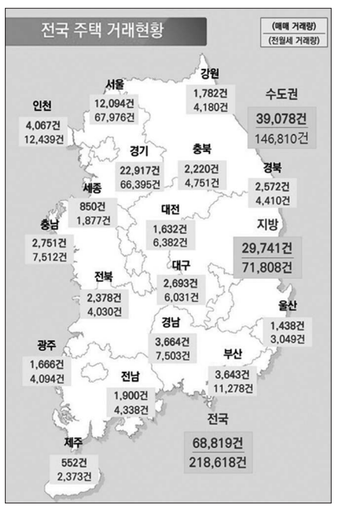
미분양 줄고 매매 늘어…부동산 반등 기대감 '솔솔'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에도 지역 163가구 감소
반도체 훈풍에 광주 서구·광산구 아파트값 상승
전남 분양 증가율 최고…광주 매매거래 11.1%↑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6월 전남광주 주택 미분양 물량이 나란히 감소했다. 또 전남은 분양이 눈에 띄게 늘면서 반등 흐름을 보였다. 광주지역도 매매거래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등 반도체 팹 조성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주택통계 조사' 결과, 주택 미분양 물량은 광주가 1245가구로 전월(1259가구) 대비 1.1%(14가구) 줄었으며, 전남은 2649가구로 전월(2798가구)보다 5.3%(149가구) 감소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광주 705가구, 전남 1568가구로 각각 0.6%(4가구), 7.9%(135가구) 감소했다.

또 전남지역은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었다. 6월 449가구를 비롯해 상반기 누계 분양은 4179가구로 전년 동기(294가구) 대비 1321.4% 급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들어 분양이 전무했던 광주지역도 6월 356가구가 새로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주택 거래 회복세도 눈에 띈다.

6월 광주지역 매매거래는 1666건으로 지난해 동월(1704건)보다는 2.2% 줄었지만 전월(1499건)보다 11.1%가 늘었다.

실제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서구와 광산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주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구가 0.29%, 광산구가 0.18% 올랐다. 광주군공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이 조성되는 데 따른 부동산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전국적으로는 상반기 주택 준공이 10만373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만5611가구)보다 49.5% 감소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개선됐다. 상반기 착공은 11만800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147가구)보다 14.4% 증가했다.

분양은 10만918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965가구)보다 60.7% 증가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서울도 2만655가구로 9.8% 줄었으며,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8.1%)과 지방(-24.5%) 모두 지난해보다 인허가가 감소했다. 6월 지방 인허가(7736가구)는 전달보다 49.6% 증가한 반면 수도권(1만181가구)은 28.1% 감소하며 월별 흐름은 엇갈렸다.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819건으로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9078건으로 1.6%, 비수도권은 2만9741건으로 6.2% 각각 늘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742건으로 전월보다 13.5% 감소했다.

6월 말 미분양 주택은 6만7464가구로 전월보다 3.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786가구로 전월보다 1.5%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 퇴직연금 DB 수익률 '은행권 1위'

〈확정급여형〉

원리금 비보장상품 60.73%…DC·IRP도 2위
전문컨설팅 출범·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효과

광주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상품 최근 1년 운용수익률에서 확정급여형(DB)이 은행권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각각 은행권 2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결과 광주은행의 DB형 원리금 비보장상품 최근 1년 수익률은 60.73%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DC형은 57.9%, IRP는 66.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퇴직연금 고객의 투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객 관심도가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창구 상담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광주은행은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초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제고와 연금 운용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조직인 'The 혜안(慧眼) 컨설팅팀'을 출범하는 등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The 혜안 컨설팅팀은 기업고객에게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인고객에게는 연령과 투자성향,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 컨설팅을 실시해 체계적인 노후자산 관리와 장기적인 수익률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이다.

류장욱 The 혜안 컨설팅팀장은 "안정적인 은퇴 준비와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6 콘텐츠 IP 굿즈 팝업스토어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콘텐츠 IP 굿즈 팝업스토어 참여기업 간담회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상품 판매·행사 운영방안 등 공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전남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6 콘텐츠 IP 굿즈 팝업스토어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도내 콘텐츠기업 10개사의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해 팝업스토어 운영 계획과 판매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행사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주말의 광장'(8월 22~23일·순천 신대천), '여수세계섬박람회'(9월 23일~10월 5일·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 '전남콘텐츠페어'(10월 9~11일·곡성기차마을) 등 3개 팝업스토어를 앞두고 참여기업의 원활한 행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일정과 물품 반입 절차를 비롯해 판매상품 등록, 재고관리, 위·수탁 판매 운영 방식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점검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참여기업이 보유하거나 활용 권한을 확보한 콘텐츠 IP를 활용해 제작한 캐릭터 상품과 굿즈 등을 선보인다. 진흥원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향후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0개국이 참가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는 전남 콘텐츠기업의 IP 상품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지역 콘텐츠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참여기업들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기업이 자체 IP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유통·판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17% 폭락 사흘만에 18%↑
널뛰기 증시에 불안감 고조

국내 증시가 지난달 31일 18% 가까이 폭등하며 최근 국내 증시를 지배했던 공포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코스피가 최근 연 사흘간의 폭락세를 딛고 이날 반등하며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됐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락과 폭락, 폭등을 오가며 이어지는 널뛰기 장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코스피는 최근 도박판 같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01.89p(17.91%) 오른 6595.45에 장을 마쳤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다.

코스피 상승률과 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도 1001.01p에 달해 역대 가장 컸다.

앞서 지난 28일 코스피는 10.84% 급락한 데 이어 29일과 30일 각각 5.98%, 1.23% 내린 바 있다. 이 기간 코스피 하락률은 17%에 달했다.

이날 급반등으로 최근 사흘간 폭락분(1,162.19p)의 86%를 하루 만에 회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반등에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별 등락률을 보면 최근 코스피는 극심하게 출렁이고 있다.

이달 22거래일 중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 이상 등락한 것은 14거래일이다. 이 중 5% 이상 등락한 것은 10거래일, 8% 이상 등락한 것은 3거래일에 달한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10% 넘게 폭락했으며 이날엔 18% 가까이 폭등했다.

이날 급등장은 연사흘 코스피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측면이 커 보인다.

두 종목은 지난 3거래일 하락분을 이날 사실상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사흘간 폭락분을 만회하고도 8500원 더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사흘간 손실의 80%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17.9% 폭등하며 '불기둥' 코스피가 전날보다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한 3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전남광주 건설사 13곳,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작년보다 3곳 감소…제일건설·우미건설 순

전남광주에 본사를 둔 건설사 13곳이 올해 전국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시장 침체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3곳이 줄어든 가운데 6곳은 순위가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를 집계한 결과 토목건축공사업 100위 안에 포함된 전남광주 건설사는 13곳으로 파악됐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는 전국 건설업체 가운데 평가를 신청한 7만4332개사를 대상으로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

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입찰자격과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지역업체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제일건설은 2조7696억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17위를 기록했다.

광주권에서는 우미건설이 2조69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계단 오른 전국 18위였으며 대광건영(40위·1조758억원), 중흥토건(41위·9859억원), 라인산업(51위·7827억원), 모아주택산업(66위·4884억원), 우미개발(80위·3231억원), 보광종합건설(91위·2790억원), 모아종합건설(93위·27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남권에서는 제일건설에 이어 금호건설(27위·1조8474억원), 라인건설(42위·9260억원), 금광기업(72위·3688억원), 위본건설(90위·2951억원)이 100위권에 포함됐다.

우미건설 외에도 대광건영(+3), 중흥토건(+1), 라인건설(+4), 금광기업(+5), 위본건설(+10) 등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는 전남 도양기업(지반조성포장, 1854억9400만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광주 1위는 ㈜지형건설(철근·콘크리트, 1316억2000만원)이 자리를 지켰다.

한편 전국 순위는 삼성물산이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로 지난해와 같았고, GS건설이 2계단 오르며 '빅3'에 이름을 올렸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건설수주 857.6% 급증…민간부문 회복세

전남도 82.6%↑…광공업 생산은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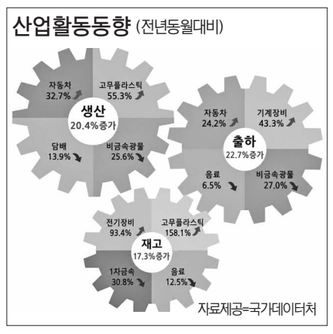
지난 6월 광주와 전남의 건설수주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민간 건축부문 수주가 급증하면서 건설수주 증가율이 857.6%를 기록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6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결과 광주의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857.6%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2048.1%, 공공부문이 130.3% 각각 늘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수주가 2518.4% 급증한 반면 토목부문은 92.3% 감소했다.

전남의 건설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82.6%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30.7% 감소했지만 민간부문은 142.8% 늘었으며, 건축부문이 395.8%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은 36.1%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광주와 전남이 엇갈렸다. 광주는 자동차와 고무·플라스틱 업종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했지만 전남은 3.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광주의 자동차 생산이 32.7%, 고무·플라스틱이 55.3% 증가한 반면 담배는 13.9%, 비금속광물은 25.6% 감소했다. 전남은 전기·가스업이 7.6%, 비금속광물이 14.9% 증가했으나 화학제품은 6.8%, 의약품은 95.0%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했고, 전남은 6.8% 감소했다. 재고는 광주가 17.3%, 전남이 9.8% 각각 늘었다.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감소했다. 백화점 판매는 2.1%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판매가 18.8% 줄어든 영향이다. 김은지 기자 eunzy@